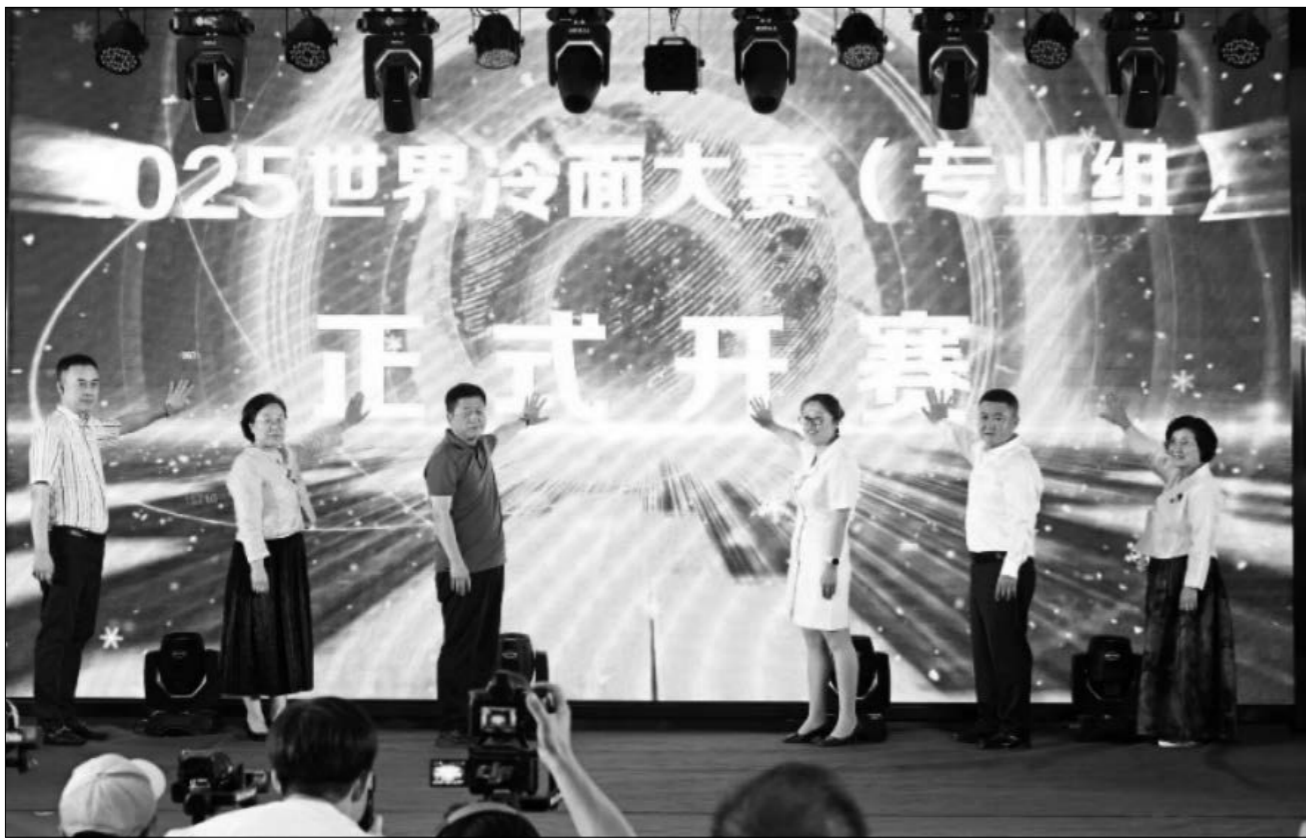


2025 세계랭면대회 연결서 개최

길림인삼 특산물 산업벨트 주제행사 개최



25일, '신선한 연변—시원한 여름' 2025 세계랭면대회 (전문가)가 연결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관한 길림성과 연변주의 결핵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문화 전승 사명을 실천하며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중국 10대 명국수중 하나이자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랭면'을 담체로 세계적 규모의 경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개막식에서 교통은행연변지행은 연변 랭면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랭면 한그릇으로 친구 사귀기' 캠페인을 통해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연변 조선족전통음식협회와 전략적 협력 기틀 협의를 체결했다.

행사에서는 연변 조선족랭면 제조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상영, 재료 선정부터 완성까지의 독특한 매력을 리얼하게 보여주었다. 이어 정채로운 가무와 민속악기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창작무용 <전승>은 대를 이어가는 랭면 문화의 전통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현장은 열기로 가득찬데 각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속적 매력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연변, 심양, 할빈, 심수 등 국내 지역과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로씨야 등 해외에서 온 60명의 참가자가 이번 대회 결승에 참가해 랭면 제조 기술과 창의성을 선보였다. 외식업체 셰프, 조리학과 대학생, 랭면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유명 셰프, 대학 교수, 음식문화학자 등 12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육수, 면, 양념, 형태, 의미'의 5개 평가 항목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받았으며 최종 '랭면대왕'과 금상, 은상, 동상 등 각종 상을 선정했다. 중국조선족식품외식연합회 집행

회장이자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회장인 김순옥은 "랭면은 인류가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더위를 피하고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음식"이라며 "연변 관광의 인기 상승과 함께 랭면을 알고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변에서 세계랭면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랭면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외식발전위원회 회장 전수만은 "협회 소속 다수 기업의 참가 및 전시를 조직했으며 연변 현지 조선족 외식기업과의 심층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하며 랭면 미식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뉴질랜드 국적 세계한식연합회 상무부회장 김명희는 "조선족 문화 매력이 넘치는 연변에 와 대회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동종 업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25일에는 참가자들이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통일된 재료로 특색 있는 랭면 육수를 완성, 26일에는 완성형 랭면을 제작했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결과 평판 랭면의 로열티인 '랭면대왕' 칭호를, 훈준고려식당의 체미란 등이 금상을, 성도발백표조선족요리의 김영희 등 6명이 은상을, 북무대로랭면의 김영복 등 12명이 동상을, 매하구연관귀보러우의 강옥성 등 3명이 창의상을 수상했다.

새롭고 달콤한 랭면은 연변 주민과 외지 관광객 모두에게 필수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2007년 조선족랭면 제조 기술은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연변 랭면의 면발은 량질 메밀 가루를 반죽하고 여러번 지대어 만듦에 기에 쫄깃하면서도 매끄러운 식감이 특징적이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이 첨가된 소고기 육수를 얼음으로 차갑게 식혀 상큼한 과일 향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이 여름 더위를 단숨에 날려준다.

특색 있는 랭면 육수 제조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기량을 발휘했다. 이날의 랭면 육수 점수는 26일 전체 랭면 완성도 평가의 25%를 차지하도록 배치되었으며 평가 기준은 국물의 맛, 향, 점도, 청량감은 물론 재료 선택, 조리법(육수, 양념, 온도 조절), 맛의 균형(단맛, 신맛, 짠맛의 조화), 려과 기술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번 행사는 세계중식업연합회 동북아외식업전문위원회, 길림성호텔외식요리협회에서 지도하고 연변주 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주상무국, 교통은행연변지행에서 공동주최하였으며 세계한식총연합회, 중국조선족식품외식연합회,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연변조선족민속요리양성학교에서 주관하고 주당위 통전부,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관광실에서 협력했다. 여러 부문 협업을 통해 상업, 관광, 문화 융합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회를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여름철 관광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우수 음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연변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중국 식문화 수도'라는 연변의 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국제적 인지도와 평판을 크게 제고했다.

중국호텔협회 부회장이며 길림성호텔외식요리협회 회장인 생명우는 축사에서 "조선족랭면은 조선족 음식문화의 탁월한 대표 음식으로서 단순한 맛있는 요리를 넘어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낸 문화적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독특한 식감, 풍부한 재료, 정교한 조리 기술로 인해 연변을 넘어 전국 나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계랭면대회를 통해 조선족 전통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랭면 제조 기술의 교류와 혁신을 도모하며 우수한 랭면 조리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국제 외식 시장에서 조선족랭면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글 김영하기자 / 사진 연변조선



'소비촉진, 민생혜택—길림인삼 특산물 산업벨트' 주제행사가 일전 연결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는 제 5회 중국신전자상거래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중 하나로 경동(京東) 그룹에서 주최, 길림성 특산품인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초점을 맞추고 경동그룹의 공급망 우세를 바탕으로 산업 승격과 소비 증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민생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행사 현장에서 길림성 '길자호'(吉字号) 특색산업 고품질 발전 작업반과 길림성상무청 관계자는 각각 길림인삼산업이 향촌 진흥과 '건강한 중국' 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 그리고 신형 전자상거래 모식이 산업 승격에 미치는 견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동건강(京東健康) 인삼·복용류 제품 담당자는 <경동건강 인삼류 추세> 보고서를 발표하며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중국 선두 의료건강 상품 및 서비스 공급 기업인 경동헬스는 의료기기, 전통 건강식품 등 의약건강 전체 산업 체인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경동 좋은 인삼'(京東好人参) 품질 등급 표준은 길림인삼산업의 표준화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경동헬스는 길림인삼산업 지원을 위해 1,000원 품질 보증금 지원 및 업그레이드된 '춘요(春晓) 계획'을 통해 현지 기업에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 지원을 제공하며 산업벨트 업체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탁회의에서는 '인삼 특산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길림지역 인삼산업 현황과 온라인 시장 특성, 플랫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길림인삼산업에 신규 전자상거래 모식을 통한 시장 확장과 민생 개선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발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져 이 특색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길림일보

연변무역대출 금융봉사 제품 출시

26일, 2025 '국조식대—글로벌 클라우드 구매' 신전자상거래축제가 연결에서 열린 가운데 연변주상무국은 대외무역 기업의 용자난을 일층 완화하고자 교통은행연변분행과 손잡고 연변무역대출 금융봉사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금융봉사 제품은 정부에서 위험 보상 자금을 제공해 조건에 부합되는 대외무역 기업을 상대로 낮은 진입 장벽과 적은 비용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지지로 기업의 용자 능력을 제고시키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전통 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이 제품을 통해 대출 한도를 일층 늘릴 수 있다. 동시에 정부의 위험 보상 자금을 증가해 신용대출 위험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은행' 위험 분담

기제를 형성해 기업의 용자 문턱을 효과적으로 낮추게 된다. 명태가공 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해당 제품을 통해 최고 3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변주상무국 부국장 총명량은 "연변 대외무역 기업의 용자가 힘들고 담보가 빈약하며 위험부담이 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교통은행 등 금융기구와 협력해 '연변무역대출'을 설계했다. '정부의 위험 보상 자금+은행 신용대출 지지' 모식으로 킥캠프 수입, 해산물 공급사슬 등 기업에 특별 자금을 제공해 대외무역 기업의 신용을 높이고 위험을 분담하며 기업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발전에 활력을 주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 연변일보

연길시북부전민건신센터 주체공사 마무리

연길시북부전민건신센터 대상이 일전 주체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총건축면적이 1만 9,883평방미터, 총투자가 1억 6,800만원에 달하는 이 현대화 체육관 건설대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내 축구장을 4층에 설치한 선례를 창조했다. 뿐만 아니라 연길시에서 단풍 트러스경간이 가장 크고 기중설비의 조립 중량이 가장 무거우며 전반 지붕의 강철 함유량이 가장 높은 기록을 창조했다.

이 대상에는 8인제 축구경기장, 통구장, 배구장, 바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경기

장과 물공급, 열공급, 전력공급 등 공공 부대공사가 포함된다.

연길시북부전민건신센터는 연길시 중환로 4기 남쪽, 서산거리 서쪽에 위치해있으며 2023년 8월에 착공했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강철구조 설치가 20% 완성되고 지하실 열공급, 물공급, 배수 등 관련 시설 건설이 완성되었으며 실내·실외 도장, 외벽보온, 통풍배관 설치 등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 김영하기자